미세먼지·배기가스…알레르기성 결막염 계절 안 따진다

건강 바로 알기
봄철 눈 질환

도움말=박정현 아이안과 원장

건조하고 꽃가루 심한날 악화
긴 외출 땐 안구 건조증 동반
렌즈 피하고 안경 착용해야

"봄만 되면 눈이 가렵고 뻑뻑하고 눈꼽이 끼어서 너무 불편해요."

매서운 추위가 지나가고 야외로 나들이 가는 봄이 되면 여러 식물들의 꽃가루, 황사, 미세먼지 등의 불청객에 노출되면서 안 질환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특히 이러한 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안구건조증은 성인, 아동 구별 없이 발생하면서 충혈, 이물감, 특히 가려움을 유발하며 눈 건강을 크게 위협한다. 또한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외부에 노출돼 있는 눈이 마르면서 안구 건조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안구 건조증**=보험공단 조사를 보면 2017년 안구 건조증 환자는 216만 여명으로 성별로는 여성 환자가 많으며 연령별로는 50대 환자가 가장 많았고 건조한 봄·가을에 가장 환자 수가 많았다. 일반적으로 증상은 눈이 건조해지고 뻑뻑해지고 시리며, 눈안에서 모래가 있는 듯한 이물감이 들 수도 있다.

눈물막은 바깥부터 지방층·수성층·점액층으로 구분되는 이러한 구성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정해지면 눈물막 전체가 파괴되고 각막에 상처가 생기는 등의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안구건조증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는 스마트폰 등의 과도한 눈의 사용, 건조한 환경의 노출, 콘택트렌즈 등의 사용이 있다.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려면 먼저 환경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실내 습도를 50% 정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시간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며 의식적으로 자주 눈을 감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따뜻하게 온찜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며 증상이 심한 경우는 안과 전문의와 상담후 인공눈물, 눈물 분비 촉진제 등 약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알레르기**=우리 몸을 방어하는 면역세포가 특정 물질에 대해 과민 반응하는 것을 말한다. 눈에는 결막염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며 흔히 말하는 결막염과 달리 원칙적으로 전염은 되지 않는다. 이 질환은 중병은 아니지만 심한 가려움증이나 충혈 등의 증상을 호소하게 되며 눈을 자주 비빔으로 인해 손에 묻었던 병균들이 눈에 들어가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결막염, 다래끼 등이 동반되기도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

■눈 알레르기 예방법

알레르기성 결막염 가운데 대부분은 증상이 가벼운 계절성 알레르기 결막염이고, 이밖에 아토피피부염이 동반된 아토피 각결막염, 아이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봄철 각결막염, 콘택트렌즈 부작용으로 말미암는 거대유두성 결막염으로 나눈다.

특히 계절성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경우에 자주 동반되는 질병이다. 전 인구의 2%에게 존재하는 대표적인 계절병으로 봄에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다. 주로 알레르기 체질인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고, 사춘기 전에 시작돼 5~10년간 재발하다가 그 이후에는 발병 횟수가 줄어들고 증상이 가벼워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이상고온이 계속되면서 계절이나 체질과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10살 이전 환자가 가장 많으며 짐승의 털, 먼지,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등이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에는 차량의 배기가스나 황사, 미세먼지 같은 공해물질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인 증상은 눈이 매우 가렵고, 심한 충혈, 눈꺼풀이 부으면서 눈물이 많이 나오고, 눈을 비비는 경우 더 심해질 수 있다. 또한 할퀴거나 타는 듯한 통증이 있고, 이물감, 눈곱, 결막하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눈을 비빌 때 약간 끈적한 점성의 분비물이 나오기도 한다. 주위가 따뜻하거나 건조한 환경에서는 증상이 악화하고, 반대로 시원하고 습윤한 환경에서는 증상이 완화되는 효과를 보인다. 눈을 뒤집어 보면 커다란 돌출물들을 볼 수 있는데, 자갈을 깔아놓은 것 같이 심한 경우도 있다. 계절성 알레르기성 결막염은 시력에 지장을 주는 일은 드물지만, 자주 일어나고 만성에 가깝다는 면에선 관리가 필요하다.

박정현 아이안과 원장이 양쪽 눈의 가려움을 호소하는 환자를 진찰하고 있다. 〈아이안과 제공〉

◇**눈 알레르기 예방법**=예방 및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꽃가루가 원인일 경우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는 외출을 피하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집진드기가 원인일 경우는 청소를 자주하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며, 침대에 플라스틱 커버를 씌우거나 카펫 제거, 애완 동물 피하기, 외출 후 손을 잘 씻고 옷을 자주 세탁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외출 시 콘택트렌즈 착용을 자제하고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가려움증을 해소하기 위해 얼음을 천에 싸서 눈에 마사지하는 냉압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한번에 너무 오래 동안 하지 않으며 대략 한번에 3분 이내로 하루에 4~8회 정도가 좋다. 눈이 가렵다고 해서 손으로 눈을 비빈다든지 집에서 소금물로 눈을 씻는 것은 결막부종 및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눈을 가리기 위해 안대를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안대 안쪽의 거즈가 분비물에 의해 오염돼 2차적인 세균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상이 심할 경우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고 스테로이드 성분이나 항히스타민 계열의 성분이 든 안약, 인공눈물을 점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창립 10돌' 청연한방병원, 장성 ㈜씨와이 본사 준공식

청연한방병원이 창립 10돌을 맞아 기념행사를 갖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병원이 될 것을 다짐했다.

청연한방병원은 최근 장성 동화면 ㈜씨와이 본사에서 '청연 창립 10주년 & ㈜씨와이 본사 및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기념식은 창립멤버 공로패 시상, 청연 10년 비전 영상 상영, 씨와이 사업계획 설명, 협력기관 협약식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첫 개원부터 10년 동안 청연인으로 근무한 나미진 본부장에게 근무용 차량과 함께 총괄이사직 특별 승진을 선사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청연이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동안 후원을 하고 있던 홍모(19)군이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을 통해 모 대학 의과대학에 진학함에 따라 장학금을 전달해 훈훈함을 더했다.

청연은 지난 2008년 3월에 청연한의원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5년 7월 신사옥으로 확장 이전해 현재까지 지역민의 건강을 위해 다양한 진료 서비스와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연한방병원 이상영 대표원장은 "청연의 10주년 기념식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의 100년을 향해 지금 보다 더욱더 발전하고 지역민과 함께 하는 청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비만, 췌장암·신장암 등 6개 암 발생 영향

체질량지수 높으면 위험 증가

비만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체질량지수'(BMI) 증가와 암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BMI의 증가가 실제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연세의대 소아과학교실 신재일 교수팀(연세대 간호대 최은경 교수)은 BMI 증가와 암 발생 위험의 상관관계를 다룬 전 세계 메타분석 논문과 빅데이터, 최신 개별 연구논문 등을 종합적으로 재분석한 결과를 유럽종양학회에서 발간하는 저명 저널인 종양학 연보(Annals of Oncology)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총 20개 암(백혈병, 다발골수종, 췌장암, 자궁내막암, 직장암, 콩팥세포암종, 악성흑색종, 비호지킨 림프종, 식도암, 뇌종양과 중추신경계 종양, 유방암, 대장암, 담낭암, 폐암, 간암, 난소암, 갑상선암, 방광암, 위암,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BMI 증가가 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폈다.

이 결과 BMI의 증가는 백혈병, 다발골수종, 췌장암, 자궁내막암, 직장암, 콩팥세포암종(신장암)의 6개 암에서 확신할만한(Convincing) 위험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악성흑색종, 비호지킨 림프종, 식도암의 3개 암은 BMI의 증가가 암시적(Suggestive)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됐다. 암시적 위험은 확신할만한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암 위험을 높이는 개연성이 있다는 의미다. 뇌·중추신경계 종양, 유방암, 대장암, 담낭암, 폐암, 간암, 난소암, 갑상선암의 8개 암은 BMI의 증가와 관련성이 약한(weak) 근거 수준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8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자동차,중기]					
2017타경 53767	1	사용본거지:광양시 광양읍 용강1길 12, 209동 407호 [용강리,창덕에버빌아파트] 등록번호:67부1919 차명:모하비 연식:2015	자동차	31,000,000 31,000,000	보관:순천시충효로25[덕암동]이수자동차매매상사
[기타]					
2017타경 8125	1	선적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무창호 선질:에프.알.피 총톤수:9.77톤 진수년월일:2014.3.4	선박	238,367,460 238,367,460	보관장소:여수시 국동항
2017타경 8842	1	선적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발리호 선질:FRP 총톤수:9.77톤 진수년월일:2016.8.10	선박	236,055,000 236,055,000	보관장소:여수시 봉산서2길 21-3
2017타경 10418	1	선적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에이스호 선체재질:FRP 총톤수:9.77톤 진수년월일:2016.7.18	선박	279,841,000 279,841,000	보관장소:여수시 국동항[대우선박]
2017타경 10944	1	선적항:여수시 신기항 선박의종류와명칭:동력선 경덕호 선체재질:FRP 총톤수:9.77톤 진수년월일:2006.5.2	선박	97,938,500 97,938,500	정박항:여수시돌산읍신기항매표소앞,보관장소:여수시국동항대신선박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8. 3. 26.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4. 2.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법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가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공개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제금, 가압류등은 소멸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알으신 후 입찰에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와 기타 일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명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유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미리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하지 말고, 대금납역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윤영수